

'전두환 추징법' 새누리 반대기류... 또 물건너가나?

새누리 "헌법위배·연좌제 논란" 내세우며 시간끌기

민주 "추징시효 남아 소급입법 아니다" 국조도 추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하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야당이 6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으나 거대 여당인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또 다시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한 법리를 내세워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 역사의 대의에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질 조짐이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전 세계 어디에도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고하는 나라는 없고 연좌제를 도입해 가족들의 재산을 무조건 추징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된다"며 "위헌으로 실행 가능성이 없는 걸 계속 내세우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기훈 최고위원은 "전두환 추징

법처럼 소급 적용할 경우 해당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온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그동안 법안의 처리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던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 밝히면서 전두환 추징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하기 힘든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과거에도 '전두환법'의 경우 항상 제출 시에만 시급하게 처리되던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전두환 추징법' 통과에 반대하는 것은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즉, 전 전 대통령이 군부 출신과 TK(대구·경북) 인맥을 주축으로 만든 민정당이 민주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을 거쳐 현재의 새누리당까지 이어지고 있어 근간을 거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새누리당이 TK지역과 보수층 표밭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전략이 법리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논점을 흐려 관련 법안을 자동폐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최재성 의원은 "추징 시효가 만료된 후 새 법을 만들어서 이를 소급해 추징하겠다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전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진행형 사안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연좌제 논란에 대해 "개정안은 법안 이외에도 불벌로 형성된 재산이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장물이 있는 이들에게 추징하는 것이어서 연좌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형법상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것은 소급문제가

아니라 시효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형벌의 집행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7일 최고위원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재국 씨의 역외탈세 의혹 등과 관련 강한 길 대표가 최근 제안한 '역외탈세·조세도과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우선 당내에 설치키로 하는 등 6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의 처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김 대표는 상임고문단의 오찬에서도 "해의도과 재산에 대해 국조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대응 강도를 높였다.

새누리당 내에도 자당의 입장에 대해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당내 해

신파의 한 의원은 "솔직히 여론이 우리당을 거세게 흔들었다면 좋겠다. 아무리 정당이 표를 먹고산다고 해도 150명 넘는 의원들이 한 몸이 돼 전두환 비호 세력처럼 행동해서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변 소속 이상갑 변호사는 9일 "추징시효 연장이 소급입법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연좌제 주장은 타당성이 있지만 범죄 수익이 가족 명의로 은닉된 경우를 밝혀내면 가족 재산도 추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와 관련해 5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와 관련, 민변 소속 이상갑 변호사는 9일 "추징시효 연장이 소급입법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연좌제 주장은 타당성이 있지만 범죄 수익이 가족 명의로 은닉된 경우를 밝혀내면 가족 재산도 추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와 관련해 5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18왜곡책 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종편 채널·일베 고소한 김점례씨

왜곡대책위, 정부에 재발방지 법·제도 마련 촉구

"죄없는 아들을 그렇게 보낸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흉어'라니요? 이렇게 왜곡하고 비하하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합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7일 광주지검을 찾아 종합편성채널 TV 조선·채널 A와 일베 사이트 회원 등 10명을 광주지검에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김점례(여·77)씨의 목소리는 분함을 참지 못하는 듯 가늘게 떨렸다.

"자식 먼저 보낸 어미 심정이 어땠냐. 무슨 말을 하냐. 그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살아왔다. 하지만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김씨는 일부 네티즌들이 일베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에 80년 5·18 당시 숨진 자신의 아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사진과 설명을 게재한 것과 관련,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오열했다.

"이제 더 이상 두고만 보진 않을 거다. 내가 죽어 우리 아들 무슨 낚으로 보겠냐" "일벌백계해야 다신 이상한 사람들이 암말 못할 것 아니겠느냐"

이대로 방치할 경우 5·18과 8·

15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5·18에 대한 진실을 모르고 혼란스러워할 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고 한다. 김씨는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강경함을 내비쳤다.

정부에 대한 섭섭함도 드러냈다.

"5·18 당시 전남도청에 누워있는 24살난 아들 얼굴을 알아볼 수조차 없었다. (계엄군)이 그렇게 무참히 죽였다. 그대놓고 이북 간첩단 등 헛소리나 지껄이고 흉어라고 욕하는 사람들을 왜 가만 놔두고 있느냐."

국가가 인정한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왜곡하는가 하면, 비하하는 무리들이 잇따르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향한 원망도 배어 있었다.

"나 뿐 아니라 5·18 피해자들은 아직도 밤에 악몽을 꾸다. 왜곡하고 비하하는 것도 더 심해져 피해자들 가슴에 커다란 대못을 박고 있다. 피해자들이 두 번 죽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

김씨는 "오늘날 민주화가 그냥



이뤄졌느냐. 광주시민 목숨과 바꾼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5·18을 비틀게 보는 건 이 땅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왜곡대책위원회는 김씨 사례처럼 5·18 광주민중항쟁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왜곡행위를 엄단해 재발을 막고 법과 제도로 확립된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라도 왜곡·비하 세력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씨의 아들 고(故) 장재철(묘지번호 2-08)은 지난 1980년 5월 23일 사망했다. 사인은 총상. 사망 장소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망 당시 고인의 직업은 이발사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5.18역사왜곡 고소장 접수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종편 출연, 인터넷 게시물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하한 10명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지검에 제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 단체 전두환 자택 항의방문한다

오늘 부패재산추징 촉구대회

5·18 광주민중항쟁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5·18 유혈진압사태의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항의 방문한다.

'5·18 역사 왜곡 저지 국민행동'(가칭)은 10일 상경 투쟁에 나서 종합편성채널 규탄 및 전두환씨 자택 항의 방문 등을 촉구한다고 9일 밝혔다.

5·18 단체, 광주·전남 진보연대,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여성단체연합회 회원 등 12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광화

문에서 5·18 역사 왜곡을 조장하는 종합편성채널 규탄대회를 갖고 오후 2시30분 연회동 전두환씨 자택으로 옮겨 부패재산 추징 촉구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전씨는 지난 1997년 대통령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징당한 2205억원 중 1672억원 을 여태껏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요구를 거부한 박승춘 보존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이종행기자 golee@

채널A, 5·18민주묘지 참배 사과

대책위 "진정성 없다" 거부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방영한 채널A 관계자들이 지난 7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대책위는 이를 거부했다.

채널A 보도본부장과 사회부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운정동 묘지를 방문해 참배한 뒤 5·18 역사 왜곡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대책위 측은 지난 5일 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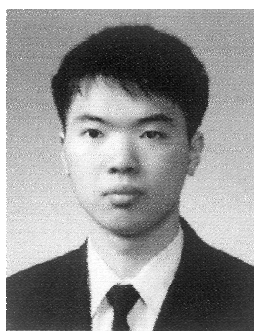
방송통신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에서 채널A 관계자가 "5·18때 북한군이 등지 않은 근거가 있다"고 강변하는 등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전날 성명을 내고 채널A가 다시 한 번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잘못을 인정한다면 즉각 오월 영령 앞에 석고대죄할 것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사람을 찾습니다!

정환아!
할머니가 애타게 기다린다.
속히 집으로 돌아오거라



성명 : 강정환
나이 : 28세

현재,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4학년

위 사람을 본적이거나 행적을 아시는 분은 급히 연락바랍니다. 후사 하겠습니다.

연락처 062)222-4476
062)232-2991~2

스마트폰 비즈니스를 선도 할 전국지사 / 대리점 및 딜러 모집

- 모든 기술 제반 본사 지원!
- 영업/마케팅을 통한 확실한 수익보장!
- 개인/기업 누구나 참여 가능!

더 가까운 서비스란?

▶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의 명함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 명함

▶ 오프라인의 출입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출입카드

▶ 강력한 스마트폰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스마트폰 서비스



<특허출원>
10-2013-0019348

"당신의 성공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드립니다"



주식회사 더 가온
☎ 02)6925-2558 / 010-8794-7609
www.thegaon.co.kr

정규직 직원모집

당사는 광주 삼성전자(주) 중, 대형 금형 수정/제작 전문 1차 협력업체로서, 2013년 물량증가 및 사세확장으로 인한 (광주 첨단2단지 내) 현지 공장 신설로 인하여, 참신하며 책임감 있으며, 근면 성실한 정규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인원	자 격 요 건
금형사상 (조립/분해)	00명	- 초보 가능 / 관련 직종 경력자 우대 - 사출금형(중/대형) 유경험자 우대
CAD/CAM	00명	- 학력 : 무관
CNC M/C	0명	- 나이 : 21~45세 이하(군필 및 이에 준하는 신분)
CNC 방진	0명	- 관련부문 자격증소지자 우대
와이어컷팅	0명	- UG 프로그램 사용자 우대(CAD/CAM)
사출	0명	-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3차원 측정	0명	- 식당 / 청소 : 나이제한 없음
식당 / 청소	0명	사내식당 유경험자 사내청소 경험우대/초보가능

- 근무지 : 광주 첨단2단지 내
- 기간 : 종원시 까지
- 급여 : 면접후 결정
- 구비서류 : 1) 이력서..... 1 통
2) 사진..... 2매
3) 주민등록등본..... 1 통
4) 건강진단서..... 1 통
5)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복지혜택

- 4대보험, 상여금(300%), 퇴직금, 기숙사, 근속수당, 성과제 인센티브
- 사내식당(조, 중, 석, 야식제공), 생활축하금, 명절선물, 월회식비지급
- 연/월차,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

전형방법

- 전화 후 회사방문(매주 목, 금요일 14시 정기 면접) / 구비서류 지참
- FAX 및 E-mail 접수가능(yoo00l@naver.com)

(주) 신 흥 정 밀

TEL. 054-473-6697 FAX. 054-473-6698 HP. 010-6309-2488

2013학년도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여러분의 뜻 다 이룬 꿈을 전남대 산업대학원에서 이뤄 드리겠습니다. 주경야독! 직장인을 위한 **이간 강의** 실시(주1~2회, PM7-11)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을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6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도입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 학습지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입학원서 작성	2013.06.10.(월) ~ 2013.06.14.(금) 09:00 ~ 18: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우 편 2013.06.10.(월) ~ 2013.06.14.(금) 09:00 ~ 18:00	창 구 2013.06.10.(월) ~ 2013.06.14.(금) 09:00 ~ 18:00
전 형 일	2013.06.28.(금) 10:00 ~	
합 격 자 발표	2013.07.25.(목) 11:00(산학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
토목공학/화학공학/환경공학/농업개발학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git/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